

## 社會參與와 研究

李 鍾 昨

(啓明大 社會學科)

지난 '87년 이래 사회 민주화의 물결은 학원에 강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 특히 '86년의 민주화를 위한 교수들의 시국 선언은 이후의 대학 민주화와 자치를 위한 움직임의 시초를 이루었다. '87년 6월 26일 6월 민주화 대투쟁의 열기 가운데서 탄생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이러한 대학 민주화 운동내에서의 교수들의 전국적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87년 하반기부터 '88년에 이르러 전국 각 대학에서 교수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교수들의 자치적 대의 기구가 결성되었으며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88년 이래 교수협의회 선출 총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는 기존의 교수회와 교수협의회 위상 설정이 학칙 및 상위법의 개정 여하에 의하여 정리되지 않은 채로 혼미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의 高麗大 사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총장의 선출 문제에 있어서도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교수들에 의한 직선제 총장이 나타난다는 것이 남의 나라 일이나 먼 후일의 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교수들에 의한 총장 선출은 오히려 당연

지사 내지 온건한 사항이며 학생, 교직원의 참여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당연히 많은 교수들의(특히 소위 소장파로 불리우는) 참여와 헌신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러한 요구는 현재에도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교수협의회 등 학내 민주화의 사항뿐 아니라 중대한 소위 학원 사태가 발생하면 사회, 문교 당국, 학교로부터 학생 지도에 배전의 노력을 기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된다. 신문 사설 등에서도 학원 사태를 해결할 자는 교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논조가 제기되며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학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교수들의 무관심, 무성의 혹은 시류에 편승하는 태도에 기인한다는 비난까지도 듣게 된다.

학원 사태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일단 이 글의 논제 밖이라 접어두고 현재의 복잡한 시류와 시국하에서 교수들은 다양한 수준의 요구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교수들은 우선 전문학자로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의 연구 업적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교에서의 강의자로서의 역할과 학생들의 성적 평가 및 논문 지도가 요구된다. 이는 아마 시대

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교수들에게 요구되는 고유 사항일 것이다. 다음에 학생 지도, 교수협의회 등 자치 기구에서의 활동 등의 학내 활동이 요구되며, 또한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의 여러 사회 단체에서의 자문 및 참여 요청이 있고 나아가서 전국적 수준에서의 이와 유사한 요청이 있을 수 있다. 꼭 반드시 자기 전공 영역에서의 학술적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 지식인으로서의 발언이 요청되며 또한 정당, 노조, 언론 등에서의 다양한 수준의 참여가 요청된다. 혹자는 이런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이 인정되어 교직을 떠나 관직, 의원직 혹은 경영자가 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기회와 요청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요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나 싶다. 여기에서 소위 인기 교수 혹은 명망가로 부상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던 각자의 처지에서 이 시대의 교수의 진정한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선배 교수님은 교수의 본분은 결국 연구실을 지키는 것이라고 당부하신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이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교수가 얼마나 연구실 혹은 공부방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아직 보지 못했고 또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자료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의 평균적 대학의 평균적 교수를 상정할 때에 우리 교수들의 연구 노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평균적 수준에서 연구실을 더욱 오래 지키자는 말은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연구와 교수라는 고유 업무 이외에 부여되는 여러 학내·외적 요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연구가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그 이외의 여타 모든 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하면서도 우리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

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중요한 계기에서 사회는 지식인의 판단과 메로는 결단을 요구하며 여기에 대해서 비록 자기 희생, 특히 학문적 영역에서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에 응해야 된다는 것은 보편적 합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유 업무 밖의 사항이 일상사가 되어서 장기간에 이르면 이는 다른 문제가 되고 만다. 이것의 가장 심각한 예는 보직 교수의 문제이다. '80년대의 대학 현실에서 일단 보직 교수가 되면, 특히 교무, 학생, 기획 등의 부서를 맡게 되면 정상적 연구 활동은 불가능해진다. 이들은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 대학 행정가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에 욕심이 많은 교수들은 보직을 담당하는 것을 금기로 생각하며 이를 후배 교수들에게도 권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교수들의 보직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대학 행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여태까지는 보직이라는 것이 아직도 할 만한 혹은 해 보고 싶은 유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보직이 이러한 보직 지망생에 의해서만 채워진다면 이것은 대학의 병폐와 비리를 척결하는 데, 즉 학내 민주화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보직도 교수들의 자기 업무의 한 영역이라고 본다면 연구실만을 지키려는 교수들의 보직 기피증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전문 보직인'이 아니라 '보통 교수'들도 보직을 수행하려면 보직의 기능과 의무는 엄청나게 달라져야 함이 틀림없다. 이러한 학교의 행정 보직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교수들의 자치 조직에 종사하는 교수들에게도 일정한 고충과 고민이 있다. 즉 대학 민주화와 더 나아가서 사회 민주화가 단시일의 과제가 아니고 또한 일회적인 결단의 행동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관여와 참여는 장기간에 걸친 일상사가 될 전망이다. 더구나 현

재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이의 성실한 수행은 끝없는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후자는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지만 민주화라는 과제도 하루의 시원스런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루한 일상적인 노력과 희생과 신경 소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오늘의 대학 현실은 보여 주고 있다.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 무엇을 이룬다는 것도 이와 같이 많은 작고 지루한 일의 축적에 의해서, 즉 꾸준히 연구실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때 연구실을 곱같은 인내로 지키는 일과 대학 민주화에 성실히 봉사하는 일은 다 같이 양립하기가 때로는 곤란할 수가 있다. 물론 보통 이상의 능력과 특히 지구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가능할지 모르나 '보통 사람'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순수한 바람의 차원에서 이 시대의 어려움이 가셔서 보직의 부담이나 대학 자치 기구의 운영이 최소한도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도 충분한, 따라서 연구와 대학 운영에의 참여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만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와야 되고 더구나 빨리 와야겠지만 그 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고민과 고통과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볼 때 이러한 바람만으로 오늘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에게 있어서의 연구란 존재 그 자체라는 말이 있다. 또한 연구 행위란 연구자의 가장 소중한 사회적 실천 행위이며 무기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민주화예의 참여와 자기 분야에서의 연구 행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문제 설정에 잘못이 있거나 무언가 실천 행위에서 잘못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두 가지 차원에서 해결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는 보다 더 중요한 길로서 개인적 차원에서 또 집단적 차원에서 자신

의 시간과 행위를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즉 組織化의 과제이다. 즉 학내 대의 기구의 운용 및 기타 참여 행위에 있어서 부담을 나누어지고 불필요한 회합과 불필요한 사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학교 행정을 책임받고 있는 사람과 문교 당국은 교수들을 아끼고 육성하겠다는 思考의 轉換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예를 들어 유신 시대 이래의 나쁜 관행인 학생 지도의 문제가 있다. 교수는 훈육관이 아니며 더군다나 감시자도 아닌 것이다. 또한 대학생은 성인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도 교수계는 사실 무용지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아직도 대학에서 지도 교수들이 학생 생활 기록부에 학생들의 국가관을 수, 우, 미...로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대학 현실인 것이며 학생들의 M.T., 졸업여행에 지도 교수가 또한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 행사에 교수가 같이 하는 것은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려는 학생들로부터의 요청에 부응한다는 점이 있기는 하다. 학생 지도뿐 아니라 기타의 행정적 협조 사항도 더욱더 줄어들어서 교수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유 업무와 전업이 연구 행위와 이의 결과로서의 양질의 강의임을 새삼 깨닫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합리성에 입각한 대학 행정과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대학내 자치 기구, 즉 교수협의회, 학생회, 직원노조 등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내 실태를 보면 누적된 문제를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기보다 엉뚱한 새로운 불씨를 던지는 일조차 왕왕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교수, 학생, 직원들을 그들의 본업으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소위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처사가 아닐까 싶다. 학내의 고질적 병폐와 누습이 조속히 치유되지 않을 때 대학인은 이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과정이 장기간에 이를 때(이미 장기화되

고 있지만) 교수들은 연구실을 지키는 일에 갈  
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 직선제 총장  
을 세워 놓는 일이 학원 민주화의 전부가 아니  
라고 볼 때 총장 직선제가 시대적 대세로 관철  
되고 있는 이 즈음에 있어서도 학원의 문제는 산  
적해 있고 시급하다. 그러나 학교 당국과 문교  
당국이 교수들을 아끼고 사랑하여서 그들이 연  
구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학내의 여러 문제  
를 성의껏 최대한도로 해결해 주리라는 것은 그

야말로 바람에 불과한 것 같다. 결국 교수들은 학  
원 민주화와 자치의 노력이 상당한 기간의 노력  
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탁월한 연구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와 일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어려운 과제이며  
상당한 개인적·집단적 희생과 헌신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  
다. \*